LG, 美 세탁가전 1000만대 생산… AI 혁신으로 1위 굳힌다

테네시 공장 가동 8년 만에 대기록
현지 생산 확대로 공급 기간 단축
로봇 300대 활용, 공정 70% 자동화
'클로이드' 투입해 피지컬 AI 고도화
제조 경쟁력 앞세워 북미 입지 강화



LG전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가전 누적 생산 1000만 대 돌파 축하 행사를 열고, 현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다져 온 사업 성과를 기념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LG전자 박용 테네시생산법인장과 손창우 리빙솔루션사업부장, 조시 워드(Josh Ward) 카운티 산업개발위원회 총괄이사 등 내외빈이 1000만 번째로 생산된 제품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미국 테네시 공장이 세탁가전 누적 생산 1000만대를 돌파했다. 현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세탁기·건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생산법인에서 세탁가전 누적 생산 1000만대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과 박용 테네시생산법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25만 4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약 5억달러를 투자했다. 지난 2018년 11월 세탁기 생산을 시작으로 2022년 건조기, 2023년 워시타워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했다. 현재 연간 생산능력은 세탁기 155만대와 건조기 70만대 등 총 225만대로, 2019년 대비 약 4배 늘었다.

현지 생산 확대는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LG전자의 미국 세탁기 매출 기준 점유율은 2018년 17.2%에서 지난해 23.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건조기 점유율도 17.4%에서 24.1%로 높아지며 두 제품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현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북미 고객의 체형을 고려해 세탁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입구를 비스듬히 설계한 통돌이 세탁기를 선보였으며, 지난해부터는 반려동물 관련 세탁 수요에 대응해 '펫케어' 코스를 기본 탑재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한국 창원공장의 생산 노하우와 가산 연구개발(R&D) 캠퍼스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현지 생산을 통해 과거 해외 생산거점에서 미국 매장까지 10주 이상 걸리던 제품 공급 기간을 약 일주일로 단축했다. 해상운송비와 수입관세 부담도 줄였다.

테네시 공장은 지난 2023년 미국 생활가전 공장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에 선정됐다. 현재 약 300대의 산업용 로봇과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약 70%의 공정 자동화율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생산라인에 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투입해 세탁기 상판 운반과 배수펌프 정렬·적재 작업 등을 검증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서울 양재 데이터팩토리에서 가공해 로봇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LG전자 세탁가전이 북미 고객에게 꾸준히 인정받아 온 결과 테네시 공장이 누적 생산 1천만 대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과 AI 기반의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yeon@metroseoul.co.kr

삼성, TV·폴더블 앞세워… CES '최고 혁신상' 4관왕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서 13개 수상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 최고상 석권
생활가전·반도체까지 총 19개 쾌거



CES 혁신상 로고와 수상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TV와 폴더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CES 최고 혁신상 4개를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에서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4개를 포함해 총 19개의 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이번 CES 2027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수상 내역은 영상디스플레이(VD) 13개, 생활가전(CE) 1개, 모바일(MX) 2개, 반도체(DS) 3개다. 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은 영상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문에서 각각 2개씩 받았다.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2027년형 TV·사운드바·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13개의 상을 받았다. 생활가전 부문 수상작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대용량 열교환기를 적용해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 구체적으로 옷감의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 적합한 코스를 제안하는 'AI 맞춤+' 기능과 세탁·건조가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도 적용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Z 폴드8'과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가 나란히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갤럭시 Z 폴드8은 콘텐츠 시청에 적합한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5.5형 커버 디스플레이는 숏폼 영상 시청에 최적화했으며 펼쳤을 때 사용하는 7.6형 메인 디스플레이로는 모바일 게임과 동영상을 넓은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최상위 제품을 뜻하는 '울트라' 명칭을 적용했다. 8형 메인 디스플레이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으며 5000밀리암페어시(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업무와 콘텐츠 제작, 영상 시청 등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서버용 저전력 D램(LPDDR5X) 기반 메모리 모듈 '소캠2(SOCAMM2)'와 서버용 D램 모듈 'DDR5 RDIMM', 온디바이스 AI용 내장 메모리 'UFS 5.0'이 혁신상을 받았다.

소캠2는 높은 대역폭과 저전력 특성을 바탕으로 AI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배터리 넘어 전력 관리"… LG엔솔,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북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
ESS·전력 운영 통합 솔루션 공개

LG에너지솔루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배터리 공급부터 전력 관리·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RE+ 2026'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시 주제는 'AI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다. 배터리 제조를 넘어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를 지원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279㎡(약 84평)로,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전시회에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등 분야에서 약 1300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시 부스를 ▲AI 데이터센터 통합 전력 인프라 ▲전력망용 ESS ▲차세대 배터리 기술 ▲무정전 전력 솔루션 ▲북미 사업 역량 등 5개 구역으로 구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와 ESS 시스템 통합, 지능형 운영 기술을 주제로 전문가 세션도 진행한다.

핵심 전시 구역에서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백업유닛(BBU),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결합한 AI 데이터센터 통합 전력 인프라를 공개한다. 최근 엔비디아의 'DSX 레디 BESS'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된 성과도 소개한다.

전력망용 ESS 구역에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 'JF3 AC LINK'를 선보인다.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으로, 부지 단위 에너지 밀도를 기존보다 약 26% 높였다. 다층 안전 설계와 디지털 트윈, AI 기반 전력 안정화 기술도 적용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구역에서는 소듐이온 배터리와 고체변압기(SST)를 결합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잦은 충·방전과 급격한 전력 부하 변화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무정전 전력 솔루션 구역에서는 차세대 무정전전원장치 랙 시스템과 원통형 배터리백업유닛을 전시한다.

북미 사업 역량 구역에서는 현지 생산 기반과 ESS 운영 기술을 소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5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ESS 전문 법인 버텍과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에어로스 수트'를 통해 시스템 설계·구축부터 운영 최적화, 자산 관리까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쏘카
10조 렌터카 시장 커지자 장기 대여사업 확대 박차
차량 운영망 활용해 신규 수요 확보

쏘카가 카셰어링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장기 차량 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국내 렌터카 시장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차량 운영망을 활용해 장기 대여 수요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사업으로 수익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123만26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의 신차 구매는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쏘카는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가 2023년 8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4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단기 렌터카 시장은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쏘카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은 1352억원, 영업이익은 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43% 늘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9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카셰어링 부문 매출은 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차량 이용시간은 11% 늘었고, 대당 매출은 175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증가했다. 매출 대비 간접비 비율은 16.8%에서 13.6%로 낮아졌다.

/이승혁 기자 sh95@

두산에너빌리티
발전설비 진단 AI 접목 정비 효율·안정성 강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전설비 진단·정비 기술을 발전사들과 공유하며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2~13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국내 주요 발전사와 산학 전문가를 초청해 '2026 발전운영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발전운영기술교류회는 발전설비 운영 경험과 최신 기술을 고객사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복합발전 사업 현황과 공급 대응 전략 ▲AI 기반 원격감시·진단 ▲AI 활용 미세균열 탐지 ▲발전 분야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예측진단 솔루션 '프리비전'을 비롯해 AI 기반 비파괴검사와 발전설비 기술자료를 활용한 운영·정비 지원 기술 등 실제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등 발전설비 공급 확대와 함께 장기서비스 및 디지털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운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예측정비와 AI 기반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설비 안정성과 정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